

방송계 동향

NEWS

broadcasting
& technology
vol. 278**한국방송협회****지상파 vs 케이블 재송신 법정 다툼,
지상파 완승**

지상파방송사와의 정당한 계약 없이 자신의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을 제공하던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SBS와 6개 지역민방이 씨제이헬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케이블방송사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정하고 총 66.2억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지난 9일 대법원은 JCN울산중앙방송이 KBS와 울산MBC에 케이블 전송설비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지상파방송사가 유료방송사의 전송시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유료방송사가 지상파의 콘텐츠를 자신의 영업에 활용했다는 취지다.

KT스카이라이프**KT스카이라이프, UI/UX 개선한 AI 서비스 출시**

KT스카이라이프가 사용자 환경 UI/UX를 전면 개선한 안드로이드 UHD 2.0 셋톱박스를 출시하며 방송 산업 전반에 대두되고 있는 인공지능 반열에 마침내 합류하였다. ‘쿼드-코어 1.6GHz’의 CPU 속도가 대폭 향상되어 VOD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줄 거라 기대되고 있는 안드로이드 UHD 2.0 셋톱박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8.0 ‘오레오(Oreo)’를 적용하고,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셋톱박스 크기는 절반으로 줄었으며, 대기모드 상태에서 전력 소비량은 9.1W로 대폭 낮췄다.

**OBS****OBS 재송신료 해결 촉구, 경인 지역 시민단체 직접 나섰다.**

경인 지역 시청자와 시민단체가 OBS의 재송신료 문제해결에 방통위와 과기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장하였다. ‘경인 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OBS는 지난해 초부터 KT를 비롯해 SKB, LGU+ 등과 재송신료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MBC**MBC PC, 모바일 전면 개편**

MBC 공식 홈페이지, 모바일 홈페이지 및 APP이 전면 개편되었다. 디자인은 심플해졌고 뉴스, 라디오, 케이블 등 각종 MBC 채널에서 현재 방송되고 있는 콘텐츠를 확인하고 바로 시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MBC 콘텐츠 외에 영화와 해외 드라마도 시청이 가능하다. ‘DISCO : Digital Styleish Content’라는 기능을 추가하여 TV로는 방영되지 않는 미방 콘텐츠도 감상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오픈되었지만 IOS용 앱은 3월에 오픈 예정이다.

CJB**CJB 방송기술인협회 신임 집행부 선출**

CJB 방송기술인협회는 2018년 12월 28일(금)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는 협회 활동 내역 및 회계 결산 보고가 있었으며 차기 집행부를 선출하였다. 신임 협회장에 장해완(기술제작팀 기술감독), 사무국장에 김중환(기술운영팀)이 선출되었고, 협회원은 강구훈 전임 협회장과 집행부의 노고에 힘찬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해완 신임 협회장은 CJB 방송기술인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역방송기술발전과 CJB 방송기술인 권익신장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tbs

tbs 설 연휴 교통특집방송 진행

2019년 설 연휴를 맞아 tbs 교통FM(95.1MHz)에서는 교통특집방송을 진행한다. 방송 기간은 2월 2일(토) 오전 5시 ~ 6일(수) 오후 12시까지이다. 생생한 교통정보 전달을 위해 모든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유쾌하고 다양한 코너로 청취자들과 함께한다. 참여방법으로는 tbs 앱을 이용하면 스튜디오와 더욱 가까이 소통할 수 있다.

EBS

‘미래학교’, 방송제작지원작 최우수상 수상

EBS의 다큐멘터리 ‘미래학교’가 2018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작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지난 12월 28일 시상식을 개최해 EBS의 ‘미래학교’를 포함한 총 9편의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 시상했다. EBS의 다큐멘터리 ‘미래학교’는 새 시대를 열어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적합한 교육법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내용으로, 미래학교 운영을 통해 미래교육의 청사진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YTN

YTN 방송기술인협회 세미나 개최

YTN 방송기술인협회는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주최한 ‘KOC 2018’에서 주목할 만한 강의를 펼친 미디어티 강정수 대표를 섭외하여 지난 1월 23일 ‘미디어 시장의 변화와 도전’이란 주제로 2019년 최신방송기술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50여 명의 YTN 직원이 참석하여 미래 미디어의 변화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했다.

아리랑국제방송

아리랑국제방송, 가족친화기업 인증

아리랑국제방송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여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가족친화기업을 인증받았다. 아리랑국제방송은 격주 금요일마다 5시 조기 퇴근제를 실행하는 ‘패밀리 데이’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성 보호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BBS

BBS 불교방송, 시무식에서 올해 방향 제시

지난 1월 2일, BBS 불교방송 임직원들은 서울 마포 본사 법당에서 기해년 시무식을 갖고 BBS 개국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며 도약을 다짐했다. 불교방송 사장은 시무식에서 BBS의 태생적, 역사적 의미를 잊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며 이 같은 자각을 미래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올해는 특히 TV와 라디오 방송 콘텐츠의 뉴미디어 활용 부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

SBS 방송기술인협회, 대의원대회 및 총회 개최

SBS 방송기술인협회는 1월 30일 대의원대회 및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의원대회 및 총회에서는 2019년 예산 확정 및 활동 계획을 정하게 되었다. 활동 계획 중에는 타 방송기술인협회와 활발히 교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9년에도 SBS 방송기술인협회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